

**2022년 12월 18일 “예수님의 비유(24) 좁은 문, 좁은 길”(마 7:13-14)**

예수님께서서는 성공을 위한 상향적 삶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이란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세상이 동의하고 선택한 세속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좁은 문(길): ‘좁은’ = ‘폭이 좁은, 협착한’의 의미. 헬라어 ‘스테노스’인데 이 단어에서 ‘stenosis’(협착증)가 나왔습니다. 어렵고 방해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마 5:10-11 에서 좁은 길을 걷는 모습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당신을 따르며 드러낼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비하신 이 두 길은 구약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신 30:15, 19-20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택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은 자동적, 기계적 방식으로 맞추어 가게 하시지 않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삶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주님 사랑과 말씀이 내 삶의 선물임을 발견하며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2] 어려운 선택**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종종 어렵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렘 21:8“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응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반면,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빌로니아로부터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투항이 생명의 길이었던 이유는 70년 포로생활을 통해 징계와 교육과 땅의 안식의 목적을 이루고, 더불어 모든 제국수명의 한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생활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백성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선택**

좁은 길로 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견고하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열악한 환경과 비천한 조건 속에 태어나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좁은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길 속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죄와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신호탄이 되어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내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의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리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심어 놓으신 곳은 세상의 겉모습과 상관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갈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